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성 요셉성월)
제32권 15호(나해) 2012.3.4

[묵상]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일상을 살듯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랜 신앙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심, 불만, 좌절, 지쳐감.
그래서 때론 특별한 위로를 꿈꾸게 된다.

그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처음으로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위한 특별한 위로를 마련하신다.

확신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소리.
베드로는 그 위로가 영원하길 원하나
하느님은 그 위로를 금방 거두신다.

순간순간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한
보잘 것 없는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행여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할까봐
특별한 위로를 마련해주시는 예수님께
이젠 당신의 위로 없이도 따를 수 있다고
당신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엔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 아닌가!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제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 신임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신태동 요아킴, 양건태 비오 & 황옥분, 김중환 야고보, 최병덕, 김희순, 전순정, 박홍운 & 최금옥, 엄은섭 도로테오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정학순 발바라, 전안나 & 전복래 데레사 가정, 정 그레이스 & 알버트 & 시몬, 고천용 &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종문 아놀드,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2,1-2.9 7.10-13.15-18

화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4

복 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르코(Mark) 9,2-10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49	154	157
봉헌	257	268	257
성체	282	292	304
파견	154	149	10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느님과 계약을 맺도록 부름 받아

우리는 진정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
니도록,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도록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23). 하느님과 나누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
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실상 인간에게 대답되지 않
고 인간의 진정한 갈망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
을 정화하고 완성시킴으로써 비추어 줍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
는 것은 우리 시대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불행히
도 우리 시대에는, 특히 서양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과 문
제들과 동떨어진 분이시며 그분의 현존은 오히려 인간의 자율
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상, 구
원 경륜 전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
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사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시라고 알려 주십니다.(요한 10,10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 자
신의 문제들에 열려 있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 자신이 지닌 가치들을 확장시켜 주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제시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목적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필요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
여 주어야 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신앙 개요」
(Breviloquium)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열매는 그저
아무런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총만입니다. 실상 성경
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여 그 안에서 보고 사랑하며 우
리의 모든 갈망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함

24).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의 대화
로 이끕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계속>

변화의 원리... 먼저 나를 바꾸는 것

사순 제2주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기쁨도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참 마음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다. 어쩌면 세상은 변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전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변화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위의 묘비명의 내용처럼 세상은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아픔만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변화의 진정한 원리는 이것인지도 모를

니다. 먼저 나를 바꾸는 것.

사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자 놀랍게도 가족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묘비명의 희망처럼 어쩌면 세상 역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항상 하는 말, 회개, 이 말은 항상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만이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뎨 나도 잘 나갔다고.
또 사람들은 추억합니다.
왕년엔 나도 예뻐다고.
우린 지금도 여전히 예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를 먹었을 뿐.
나이에 맞게 예쁘며
나이에 알맞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왕년’이란 알로
뒹어두기엔 여전히
빛나는 지금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틸리안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 두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김대형 가브리엘	권오상 마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시간 :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 장소 :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두 학년씩 진행합니다.
* 3월4일 : 9,10학년 * 11일 : 7,8학년 * 18일 : 5,6학년
* 25일 : 3,4학년 * 4월1일 : 유치부, 1,2학년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3월말까지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 오후 6시~3월10일(토), 백삼위본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3월31일까지(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면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사우스베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토런스 사우스 하이스쿨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최현찬 안드레아 ☎(310)938-0848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3/7(수)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페트릭 781-0787 3/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17(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3/1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3/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3/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올리아나 634-6923 3/8(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3 3/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10(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3/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3/10(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3/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주님,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주소서.

제 방 탁자 위에는 1987년 여름 영세받을 때 선물로 받은 키 60센티미터 정도의 '파티마' 성모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막무가내식 때 기도를 올릴 때마다 성모상을 두 팔로 껴안고 합장하여 모은 성모님의 손에 머리를 들이댄 공격적인 자세로 묵주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자세였지만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기도 했을 터이니, 제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운다고 해서 성모님이 저를 매정하게 밀치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슨 자국을 보았습니다. 바탕이 짙은 초콜릿 빛깔인 탁자 위, 내가 기도하는 바로 앞자리 위만 하얀 얼룩무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제가 흘린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눈물에 강한 소금기가 있다는 상식은 알고 있었지만 옷칠한 탁자를 탈색시킬 만큼 방울진 눈물 자국이 작은 포도송이처럼 맺혀 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제 슬픔에 겨워 닥치는 대로 때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주님, 정말 이리 시깁니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제가 비록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 부어라.’(요한 2,7: 공동번역 성서)라고 이르셨듯이 제육체의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포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앙앙 엉엉.”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0년 10월 27일, 마침내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암치료로 빠진 손톱에는 약방에서 고무 골무를 사다 끼우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하루에 20에서 30매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고를 썼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작가생활 동안 누구보다 왕성하게 글을 많이 썼던 저였지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단숨에 활기 넘쳐 창작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쓰는 느낌이었으며 제 손은 자동재봉틀처럼 저절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6일, 정확히 두 달 만에 1,200매의 전작 장편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입니다. 작품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성모님은 아드님께 제 기도를 전해주셨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주시어 저를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작품을 쓰다가 나중에는(나이가 들수록) 덜 좋은 것이 나오는 법인데 이 좋은 작품(포도주)이 병중에 나오니 웬 일이요.”(요한 2,10 참조)

공동번역 성서)

저는 이미 ‘말씀의 이삭’란에도 두 차례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쓰는 글이 먼젓번 글보다 더 여러분을 거나하게 취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 때의 기도에 ‘항복!’하시고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가을날」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 (중략) / 마지막 잎새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해주시고 /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주소서 /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주시고 /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은 제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포도송이는 포도주가 되었나이다. 이틀이면 충분하나이다. 우리 모두 서정주의 시 「행진곡」에서처럼 “결국은 조금씩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초대받고 온 저마다의 손님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충분히 대접하고 흥겨운 잔칫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생의 잔칫날에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조금씩 취해서 “빠알간 불 사르고 재를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허락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사랑, 포도주의 첫 기적을 지금 여기서 베풀어주소서. 아멘.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 대교구 주보 ‘말씀의 이삭’)